

 바른 ICT 연구소 Barun ICT Research Center	보도자료	http://www.barunict.kr/
2018년 5월 2일 행사 진행됩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관련 문의: 02-2123-6694	barunict@barunict.k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바른ICT 북 콘서트 개최

- 바른ICT연구소의 『스마트시대, 바르고 건강하기 살기』 출판을 기념
- 미래 ICT의 빛과 그림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저자 특강과 대화

2018년 5월 2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바른ICT 연구소는 『스마트시대, 바르고 건강하기 살기』(이담복스)의 출판을 기념하고 저자와 독자의 소통을 위한 바른ICT 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출간한 『스마트시대, 바르고 건강하기 살기』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다양한 사이버 이슈들(온라인 윤리, 사이버 자아, 스마트폰 과의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올바르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마트시대, 바르고 건강하기 살기』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다양한 이슈, 즉, 사이버 자아와 새로운 온라인 윤리(이종범 박사, 종교인문연구원), 디지털 중독재로서의 스마트폰(한상필,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중정, 연세대학교; 윤혜정 이화여자대학교), 노령층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정태명, 성균관대학교), 노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기기교육 방안(안미리, 한양대), 정보보호를 통한 ICT의 발전(김범수 연세대학교, 이애리 상명대학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사회가 나아가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오픈소스 SW센터의 백기승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는 우리 사회를 디스토피아 혹은 유토피아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신뢰가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의 진화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언급하며,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 여러분이 ICT발전의 명과 암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모바일 홈페이지

<http://www.barunict.k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설립됐다.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IT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바른ICT연구소, 02-2123-6694, barunict@barunict.kr